

SK온, ESS중앙계약 과반 수주 ‘K-LFP 배터리’ 기술혁신 주효

국내 생산·소재 전면에 내세워
‘화재 징후 예측’ 안전기술 고도화
ESS 중심 실적반등 발판 마련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국내소재 부품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앞세운 SK온의 승부수가 통했다. 적자 탈출이 시급한 SK온이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 사업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해 93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각 자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ESS 운영실’과 ‘ESS 세일즈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ESS 중심으로 재편했다. 수익 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제2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약 1조원 규모 ESS 배터리 물량의 50% 안팎을 확보하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ESS는 구축·운영 실적이 축적될수록 신뢰도와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업인 만큼,

이번 국내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2차 입찰은 평가 구조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비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안전성 항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SK온은 이번 2차 입찰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와 국산 소재 활용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극재는 엘앤에프, 전해액은 덕산일렉테라, 분리막은 SKIET와 WCP 등 국내 업체와 연계해 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충남 서산 공장에는 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LFP 생산라인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ESS용 LFP 배터리에 적용해 화재

발생 약 30분 전에 이상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가격 평가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총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현재까지 2차 입찰을 거쳐 약 2조원 규모가 진행됐다. 1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76%, LG에너지솔루션이 24%를 차지했고 SK온은 수주 실적을 확보하지 못했다. 2차 입찰에서는 SK온이 과반을 확보했다. 삼성SDI는 약 35%, LG에너지솔루션은 14%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예정된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앞두고 배터리 3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3차, 4차 입찰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입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은 만큼 다음 입찰에서는 더욱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 강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프리미엄·활용성 ‘굿’… 국민 픽업트럭 귀환

YG의 CAR TALK **카톡**

KGM ‘무쏘’

벤츠 G바겐 다이내믹서스펜션 적용
2000만원대 합리적 가격·연비 우수

과거 국산차 시장에서 SUV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프리미엄 SUV’ 시대를 이끈 무쏘, 특히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엔진을 탑재하며 뛰어난 내구성까지 확보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벤츠 엔진을 단 국산차’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도심형 프리미엄 시장을 독점했다.

이번엔 2억원에 육박하는 벤츠 G바겐의 주행감성을 담은 5링크다이내믹서스펜션을 적용한 무쏘로 탄생했다. 5링크다이내믹서스펜션은 안정적 주행 및 오프로드 등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우수한 주행성능을 확보해 일상에서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를 출발해 경기 파주시까지 왕복 약 120km 구간에서 무쏘(가솔린·디젤)를 경험했다.

첫 인상은 픽업트럭의 웅장함과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담은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실내는 기존 픽업트럭 대비 확실히 고급화된 분위기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KGM 링크내비게이션이 적용돼 주행 정보 전달이 직관적이다.

주행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 디젤 2.2 LET 엔진을 얹은 모델은 묵직한 주행성을 경험할 수 있다. 최대 토크는 45kgf·m로, 가솔린 대비 약 16% 이상 높은 수치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체를 밀어내는 강한 힘이 분명하게 전달된다.



KG모빌리티 무쏘 주행 모습.

또 오르막 경사 구간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힘은 디젤 모델 특성을 완벽하게 체감할 수 있다. 다만 고속 영역에서는 가솔린 모델 대비 가속의 아쉬움이 남았다.

반면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17마력, 최대토크 38.7kg·m 성능을 발휘하며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고속 구간에서 빠르게 반응하며 디젤과 달리 여유로운 출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실내 정숙성도 SUV 수준으로 준수하다.

무쏘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연비 효율이다. 무쏘 그랜드 스타일 디젤의 공인 복합 연비는 9.8~10.0km/L, 일반 가솔린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7.6~7.9km/L다. 실제 시승 후 디젤은 12.3km/L, 가솔린은 9.2km/L를 기록했다. 판매 가격은 2WD·스탠다드 데크 기준 2.0 가솔린 모델이 2990만원부터, 2.2 디젤 모델이 3170만원부터 시작한다.

무쏘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 뛰어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픽업 트럭을 고민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첫 차로 구매하기 최적의 모델임은 틀림없다.

/양성문 기자 ysw@

한화오션, 캐나다 조선소·대학 협력 강화

온타리오조선소-모호크대 LOI 체결
잠수함·해군 사업 등 수주 경쟁력 제고

한화오션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교와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도 체결하고 조선 인력 양성 허브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한화오션은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 계획 수립,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조선소 기반 공정 운영 등 선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캐나다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포함한 향후 캐나다 해군 사업 대응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며, 차세대 조선 역량을 실증하는 대표 사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온타리오조



모호크대학 폴 암스트롱 총장(앞줄 왼쪽),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앞줄 가운데), 온타리오조선소 손 파들로 대표(앞줄 오른쪽)가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캐나다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선소 내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한다. 향후 10~15년간의 조선소 확장·현대화 계획과 연계해 용접, 제작, 해양기계, 전기, 로보틱스, 비파괴검사 등 조선 핵심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온타리오조선소 내 통합형 교육 캠퍼스 구축 ▲산업 주도형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선소 생산·확장

계획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 확립 ▲가상현실(VR),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 과제 공동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CPSP 사업 수주 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주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가능성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와 현지 업체와의 산업 협력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최윤범 회장, 美·유럽 등 글로벌 경영 ‘구슬땀’

〈고려아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나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스위스와 미국, 프랑스 등 3개국을 넘나드는 글로벌 광복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 의장직을 수행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2회 연속 IEA 각료이사회에 초청됐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고려아연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산업계가 함께하는 핵심광물 라운드테이블 세션의 의장까지 맡았다.

최 회장은 IEA 각료이사회 본회의 참석을 계기로 파티비를 IEA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 회장은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팀 호지슨 장관과 공동의장을 맡아 ‘정부-산업계 토론회: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의 개·폐회사 연사로 나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산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주 최 광물 안보 대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양성문 기자 ysw@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매각 추진

지분 15.2% 보유… 10조 이상 평가

삼성SDI가 삼성디스플레이 보유 지분 매각을 공식화했다. 투자 자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투자 자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등의 매각 추진 안건을 이날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SDI는 향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거래 상

대, 규모, 조건, 시기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이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시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로,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15.2%는 장부가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삼성SDI 관계자는 “거래 상대와 조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 자원 마련 등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AI연구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발간

LG AI연구원은 ‘책임 있는 AI’와 ‘포용적 AI 실현’을 위한 LG의 노력을 소개한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LG전자와 LG유플러스 등 LG 주요 계열사의 AI 윤리 실천 사례를 보고서에 담아 계열사들의 AI 윤리 실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등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 고객과 사회가 안심하고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의 안전과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LG가 AI로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LG AI연구원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AI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신뢰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